— Sat-159 —

*Streptococcus pyogenes*에 의한 독소 쇼크 증후군 1예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내과학교실

나종천*, 서승철, 이진호, 김의석, 황동희, 고행일

서론: 사슬 알균 쇼크 충격 증후군은 저혈압, 다장기 부전증, 응고 병증, 고열, 성인 호흡 곤란 증후군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질환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독소 쇼크 중후군과 관련된 중증 사슬 알균 감염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국내는 조 등이 근육 괴사를 동반한 사슬 알균 쇼크 중후군 1예를 보고한 바 있으나 그 발생 빈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저자 등은 전형적인 사슬 알균 독소 쇼크 증후군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68세 남자가 하루 전부터 시작된 고열, 오한, 전신적인 근육통, 다량의 설사, 전신 쇠약감으로 병원에 실려왔다. 환자는 9년 전 뇌출혈에 의한 우측 반부전마비 상태였다. 응급실에서 정신 혼돈 상태였고, 혈압은 130/70, 심박동수는 92/min, 체온은 38℃, 호흡수는 24/min이었다. 복부와 흉부 피부에 홍반성 구진이 관찰되었고, 우측 하지에 함요 부종, 국소 열감, 동통, 압통, 홍반이 있었으며 엄지 발가락에 국소 창상 감염이 있었다. 백혈구 증다증, 혈소판 수치 감소, 혈중 creatinine 상승, AST와 ALT 증가, CK와 LDH 증가 소견이 보였다. 3시간 후에 급성 호흡 부전을 동반한 쇼크 소견을 보이며 의식이 혼수 상태로 변하였다. 치료는 국소 감염 부위를 치료하여 병소를 제거하고, 항생제로 cefazolin과 clindamycin을 사용하였으며 기계호흡을 실시하였다.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수액 요법, 혈압 상승제를 투여하였으며 다장기 부전과 전해질 불균형에 대하여 지지적 보존 요법을 하였다. 경과 관찰 중 약 2주 뒤에 열이 떨어지고 우측 하지와 손가락, 손바닥, 발가락, 발바닥에 피부 박탈 소견을 보였다. 창상에서 나간 세균 배양 검사에서 *Streptococcus pyogenes*를 동정하였다. 환자는 특별한 부작용 없이 퇴원하였다.

— Sat-160 —

결핵균 감염에 의한 기관지 중심성 육아종증 1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조현선*, 박선희, 최수미, 이동건, 최정현, 유진홍, 신완식

기관지 중심성 육아종증은 기관지와 세기관지를 중심으로 육아종을 형성하는 매우 드문 염증성 질환으로 1972년 Liebow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주로 알레르기성 기관지폐 아스페르길루스증와 관련된 조직학적 소견으로 기관지 천식이 있는 환자에서 잘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관지 천식이 없는 환자에서도 발견되며 그 원인으로 아스페르길루스증, 히스토플라스마증 및 폐결핵 등의 만성 육아종성 감염질환, 베게너육아종증, 류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결체조직질환 등이 보고되었고 원인불명인 경우도 있다. 결핵균에 의해 기관지중심성 육아종증의 조직학적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조직학적 진단뿐 아니라 객담배양에서 결핵균이 동정되어 진단된 예는 국내에서 보고된 바 없다. 저자들은 결핵균에 의해 조직학적으로 기관지 중심성 육아종증 소견을 보인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눈의 가성종양으로 내원전 1년간 methylprednisolon 8mg을 복용중인 49세 여자가 발열과 기침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흉부방사선검사에서 공동이 있는 다발성 폐침윤과 기관지확장증 소견이 관찰되었다. 환자는 경험적 항균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폐병변의 호전이 없어 기관지내시경을 하였으나 기관지폐포 세척액에서 미생물학적 검사 및 기관지내시경하 조직검사에서 원인을 찾지못하여 흉강경하 폐생검을 시행하였다. 조직검사에서 기관지중심성 육아종증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조직 항산균염색은 음성이었으나 객담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이 동정되었다. 환자는 항결핵제 복용후 현재 6개월째 추적 중이며 발열등 임상증상의 호전과 방사선학적 소견 호전 중이다.